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10. 2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노르웨이, '화살 난사' 희생자 직접 사인은 흉기로 판명
 - 10.19 노르웨이 경찰은 지난 13일 수도 오슬로 서쪽 콩스베르그 지역에서 발생한 '화살 난사 사건' 수사 결과, 사망자 5명의 직접적인 사인은 화살이 아닌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자살이라고 발표
 - * 범인은 해당 지역 거주 중인 이슬람 개종 전력의 덴마크 출신 37세 남성이며, 극단주의 성향으로 경찰의 감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상황
- 英 보수당 의원, 괴한의 칼에 찔려 사망
 - 10.15 英 보수당 의원 데이비드 에이메스가 자신의 지역구인 에섹스 주민들과의 정례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군중 속에 섞여 있던 소말리아 출신 남성이 휘두른 칼에 수차례 찔려 사망
 - * 범인은 과거 英 정부의 이슬람 커뮤니티 급진화 예방 테러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, 경찰은 同件을 테러로 규정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관련성 등 조사 예정

미주

- 美, 아프간 특사 교체
 - 10.18 美 국무부는 최근 수년간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벌여온 「잘 메이 할릴자드」 아프간 특사가 사임했으며, 「바이든」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부터 중동정책을 담당한 「톰 웨스트」 부특사를 후임자로 임명
 - * 美軍의 아프간 철수가 완료된 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으로, 사실상 철군 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혼란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평가
- 페이스북 AI, 테러 등 유해 콘텐츠 필터링 기능 미약
 - 10.18 美 WSJ은 페이스북 콘텐츠 중 테러·폭력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필터링하는 'AI 시스템'이 초보 단계이고 특히 1인칭 총격영상 필터링*도 실패하는 등 차단 수준이 허술하다고 지적
 - * '19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테러범의 페이스북 생중계 사건을 계기로 총격영상 탐지기능 개발

아 · 태평양

- 경찰청, 테러대응 등 '확장현실(XR) 훈련시스템' 구축 추진
 - 10.18 경찰청은 향후 5년간 240억원을 투입하여 확장현실(XR)* 기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, 경찰관이 테러·강력범죄, 교통사고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현실감 있는 훈련이 가능한 체계 구축 계획
 - * XR(eXtended Reality, 확장현실) : 가상·증강·혼합현실 및 홀로그램 등 기반 기술
- 방글라데시, 무슬림·힌두교도 간 폭력사태 발생
 - 10.16 英 가디언은 방글라데시 힌두교 축제 일부 참여자들이 코란을 힌두교神 동상에 올려놓자 이를 신성모독으로 여긴 무슬림과 힌두교도들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해 최소 7명이 사망했다고 보도
 - * 방글라데시는 1억 6,500만 인구中 90%가 무슬림으로 힌두교도 탄압이 빈번

중 동

- 헤즈볼라*, '전투원 10만명 이상' 주장
 - 10.18 AP통신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지도자 「하산 나스랄라」가 헤즈볼라에 소속된 전투원 규모는 1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며, 이는 반대 세력을 겨냥한 억제책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
 - * 팔레스타인·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축출 및 이슬람 국가건설을 목표로 '82년 설립 /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.10), EU('13.7, 軍조직만 지정), 영국('19.3)

아프리카

- 나이지리아軍, ISIS-西아프리카 지부 수괴 사망 발표
 - 10.14 나이지리아軍은 한 때 보코하람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ISIS-西아프리카지부(ISWAP)의 수괴 「아부 무사브 알 바르나위」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며, 사망 관련 구체적인 상황은 未공개
 - * ISWAP는 보코하람의 분파였으나 적대관계로 갈라섰으며, 同人의 지도 下 최근 수 년간 나이지리아 북부와 차드 분지를 차지하고 니제르 등 주변국에서도 활동

러시아, 볼고그라드市 ‘검은 과부’ 자살폭탄 테러

- '13.10.21 러시아 남부 도시 볼고그라드市에서 정차 중인 버스 內 여성이 자행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, 6명이 사망하고 30명 부상
- 수사당국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출신으로 무슬림으로 개종 전력이 있는 「나이다 아히알로바」 (30세)를 테러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며,
 - 「아히알로바」는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에서 활동중인 이슬람 반군 조직원 「드리트리 소콜로프」 (21세, 폭발물 제조 전문가)의 내연녀로
 - 벨트 형태의 폭발물을 착용한 「아히알로바」가 버스 승차 직후 자폭해 테러를 자행했으며 생존 승객 중 목격자도 있다고 발표
- 소위 ‘검은 과부’ 테러로 알려진 同 사건은 소치 동계 올림픽 개최 (14.2월) 100여일을 앞두고 발생한바,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국 주관 국제행사 방해 목적의 추가 테러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
 - * '13.7월 반군 지도자 「우마로프」는 이슬람 무장단체들에게 올림픽 방해 테러 수행 촉구
- 실제로, 12.29, 12.30 또다시 볼고그라드市에서는 이슬람 반군 소행 추정인 연이은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, 올림픽 안전에 대한 우려 고조

< 검은 과부(Black Widows) >

- 2000년대 初 北카프카스 지역에서 양성되기 시작한 여성 테러범들과 러시아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격렬한 저항을 벌였던 체첸 여성 테러범을 지칭
 - 남편 등 가까운 가족이 러시아軍에게 생명을 잃거나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적개심을 품게 된 여성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‘과부’라고 호칭
 - * 체첸계 분리주의자들은 과부가 된 무슬림 여성들에게 “남편 없는 여자는 짐일 뿐이다. 남편은 네가 지은 죄로 죽은 것이다”며 자살 폭탄테러를 종용
 - 스스로를 ‘샤히디(순교자)’라고 부르며, 체첸 반군과 함께 인질극 또는 자살 폭탄테러 감행
- (주요테러)
 - '10.03 러시아 모스크바 지하철 자폭테러(사망 40여명, 부상 90여명)
 - '11.03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공항 자폭테러(사망 35명, 부상 180명)
 - '13.10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시내버스 자폭테러(사망 7명, 부상 30여명)
 - '13.12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기차역 자폭테러(사망 17명)